

ESG 자문 그룹 이슈리포트

ISSUE REPORT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2022년 Vol.18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 기업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ESG를 통해 새로운 사업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ESG 자문 그룹을 출범하였습니다. 대륙아주 ESG 자문 그룹은 오광수,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기업 법무 전문가인 이상봉 변호사가 팀장으로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자문 그룹의 주요업무는 1)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2) ESG 경영전략 수립, 3) ESG 실사, 4) ESG 책임투자, 5) 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 6) ESG 소송 등 분쟁해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자문 그룹은 ESG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격주로 ESG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등을 소개한 주요 기사를 수집하여 공유드리고, 중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층리포트를 함께 발송드릴 계획입니다.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환경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원료·제조물 부분 해설서 배포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중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이달 말부터 산업계와 관계기관에 배포 하였습니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도입된 법률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2년 1월 27일 시행 예정(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에 법이 적용되며 다만,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이번 해설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중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 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사업자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별첨1-1][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원료·제조물 부분 해설서 배포

[별첨1-2][별첨] 중대재해처벌법 해설_중대시민재해(원료,제조물)

환경부 -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대상으로 올해 1월 7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7개월간 총 979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올해 지원사업은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최근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동향을 반영하여,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222억 원) 보다 341% 증가한 97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배출권 할당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한해 국고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할당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상생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과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으로 구분되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879억 원)'은 할당업체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설비*를 도입할 경우 설치비를 지원하며, 최대 60억 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를, 그 외는 50%를 지원합니다.

* 재생에너지설비, 폐열회수설비, 인버터, 고효율기기, 탄소포집, 불소저감설비 등

특히, 새로운 사업 모델인 상생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업체(대기업 포함)가 국고 지원(국고 50%+할당업체 50%)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할당업체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개정(2021.12.30. 시행)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100억 원)'은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할당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저탄소 연료로 전환할 경우 설비 교체비용의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별첨2][보도자료]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공동으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1년 3월부터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 이행계획의 세부 과제를 도출했으며,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였는 바, 이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Ⅰ. 생산·유통단계 자원순환성 강화
- Ⅱ. 친환경 소비 촉진
- Ⅲ. 폐자원 재활용 확대
- Ⅳ. 안정적 처리체계 확립
- Ⅴ.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

[별첨3][보도자료]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주요기사 소개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이런 기후위기 피해 규모를 계산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바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라 합니다. 다만 나라마다 '기후위기 심각성'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값이 천차만별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정권에 따라 이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1톤당 7달러였습니다. 2017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부정적이었던 까닭입니다. 반면, 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한 바이든 정부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1톤당 51달러로 계산했습니다. 전 정권과 비교해 7배 넘게 오른 셈입니다. 그나마 바이든 정부의 추산 비용도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탄소 피해를 적게 잡은, 보수적 계산이라는 게 환경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취재후] “탄소, 너 얼마나?”...우리나라엔 없는 ‘탄소 사회적 비용’ (KBS 2021년 12월 28일자 보도)

2. 지난해 일본 기업이 관련된 인수·합병(M&A)이 4천 건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3일 일본 M&A 정보업체 `레코프(RECOF) 데이터`를 인용한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출자를 포함한 일본 기업의 M&A 건수는 전년과 비교해 14.7%(550건) 많은 4천280건(속보치)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일본 기업의 주요 M&A 사례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움직임도 두드러졌습니다. 일본 최대 석유제품 공급업체 에네오스(ENEOS)홀딩스는 도로포장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닛포(NIPPO)를 1천900억엔에 매각하였는데,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이산화탄소(CO₂)가 나오는 것이 경영상 부담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네오스는 또 북해 유전에서 원유를 생산하는 영국 자회사의 매각(1천900억엔)을 확정하였으나, 동시에 이 회사는 천억엔을 투입해 태양광 사업 등을 영위하는 신재생 에너지업체 `저팬 리뉴어블 에너지`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에네오스는 전기차 보급 등으로 2040년에는 일본 국내 석유제품 수요가 반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석유 관련 사업의 재편을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캐나다에서 셰일가스와 오일샌드 개발 사업을 해온 일본석유자원개발(JAPEX)은 총 1천300억엔의 손실을 보면서 현지 자회사를 매각하고 이 사업에서 철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 기업 M&A 역대 최다...탈 탄소 흐름 반영 (한국경제 2022년 1월 3일자 보도)

3.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국제 가전 전시회 'CES 2022'가 지난 7일 막을 내렸는데, 이번 전시회는 첨단 기술의 향연인 동시에 앞으로 기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었던 진지한 자리였다는 평가입니다. 행사의 출발을 알린 지난 4일 기조연설에서 연사로 나선 한중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미래를 위한 동행'(Together for tomorrow)을 주제로 한 연설을 통해 기술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지속 가능한 미래'로 규정했습니다. 기술 혁신과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 다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SK그룹은 '탄소감축'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등, 다른 주요 국내 기업들도 같은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해외 기업 중에서도 친환경을 강조한 곳이 많았습니다. 일본의 파나소닉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독일의 보쉬는 환경 보호를 위한 화재감지 센서를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농기구 회사인 존디어는 잡초만 골라 선택적으로 제초제를 뿌려 제초제 사용량을 77% 줄일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으며, 레인스틱은 샤워로 버려지는 물을 재순환해 80%의 물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솔루션을 내놔 주목을 받았습니다.

CES에서 본 기업의 미래는...이젠 기술 아닌 '지속가능' (뉴스1 2022년 1월 9일자 보도)

4. 정부는 올해부터 탄소중립을 목표로 다양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을 시행합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 하, 산업·에너지·수송·인프라·폐기물 등 5개 분야의 탄소배출 저감을 지원하는 것이 새로 시행하는 정책들의 공통된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탄소중립을 이행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지난해 9월 국회가 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인데 이 법은 탄소중립 이행 절차를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에 대한 지원만큼 의무도 늘어나는 데, 우선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 법인은 환경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친환경차구매목표제 시행,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화 등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쏟아지는 ESG 정책...기업 부담 확 늘었다 (한국경제 2022년 1월 10일자 보도)

5. 올 유럽연합(EU)이 지난해 7월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세(CBAM) 입법안의 채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EU의회는 CBAM 대상 품목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탄소국경세 부과 대상이었던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외에도 석유화학 제품 등 탄소 배출이 많은 다른 업종도 CBAM 적용대상에 추가될 수 있어, 유럽에 수출하는 국내 철강업계, 석유화학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BAM이 강화되면 철강·알루미늄·시멘트업계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업계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우리 수출 기업들의 타격이 클 전망입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간 유럽과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1일 가격 최대 차이인 55.4달러로 계산하면 알루미늄산업은 21.9%, 철강산업은 20.6%의 대(對)EU 수출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위 값인 33.1달러로 가정하면 알루미늄 13.1%, 철강 12.3%, 시멘트·비료는 각각 1.8%의 수출 감소 효과가 예상됩니다.

EU 탄소국경세, 더 센 놈이 온다...철강·화학업계 어찌나 (머니투데이 2022년 1월 11일자 보도)

대륙아주 ESG 동향

1.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지난 달 30일 한국ESG학회와 법률 자문 및 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대륙아주는 한국ESG학회에 △ESG 관련 법률 자문 △한국ESG학회가 발간하는 간행물 등의 칼럼 지면 정보 △교육 및 세미나 강의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륙아주·한국ESG학회, '법률자문' 업무협약 (법률신문 2022년 1월 5일자 보도)

2.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6일 (주)에코시안(대표이사 문성철) 기후전략본부를 초청해 '온실가스 감축제도'를 주제로 강연을 열었습니다. 대륙아주 ESG자문그룹 변호사와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강연은 환경부가 지난 달 29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인증에 관한 지침'과 '배출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를 개정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관련 지침에 대한 기업 질의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온실가스 감축 제도' 초청 강연 (법률신문 2022년 1월 7일자 보도)

3. 대륙아주 김병철 고문이 월간으로 발행하는 월간 씨이오앤에서 '2022년, ESG경영의 모멘텀이 시작된다'를 주제로 기고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본 기고문은 2022년부터 적용되는 ESG 관련 법률 및 핵심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고-월간 씨이오앤]2022년, ESG경영의 모멘텀이 시작된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이상봉 파트너변호사

ESG, 건설/부동산, 기업자문

E sblee@draju.com

T 02-3016-5276



기소현 파트너변호사

ESG, 기업자문, 금융

E shki@draju.com

T 02-3016-8702



노현철 파트너변호사

ESG, 국제, 기업자문

E hcnoh@draju.com

T 02-3016-8730